

# 4/4분기 양돈경기 전망과 대책

## 1. 생산, 유통 및 가격 동향

### ①가축 사육동향

'88년 6월 현재 사육중인 돼지 마리수는 4백 60만 7천두로 1년 전보다 15% 증가 하였으며, 어미돼지 마리수는 67만 9천두로 역시 14% 증가했다. 한편, 한우·육우 마리수는 1백 72만 9천두로 19.5% 감소한 반면,젓소는 47만 5천두로 4.4% 증가했고 육계마리수 역시 2천 5백 26만수로 12% 늘어났다.

### ②유통 및 가격 동향

금년 상반기에 돼지 도축두수는 전년대비 16.8~36.4% 늘어나서 돈가(서울 평균 지육 가격 기준)는 전년동기대비 2.8~22.4% 하락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도축두수 증가율이 둔화(16~17% 증가)되면서 돈가 역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1 참조)

한편, 소 값(서울 도매가격 기준)은 소 도축두수가 감소(상반기중 전년동기대비 0.9~39.9% 감소)하여 16.3~39.5% 상승했으나 최근들어 전년동기대비 40% 정도로 크게 오르고 있다.



이 일 형  
(본회 지도부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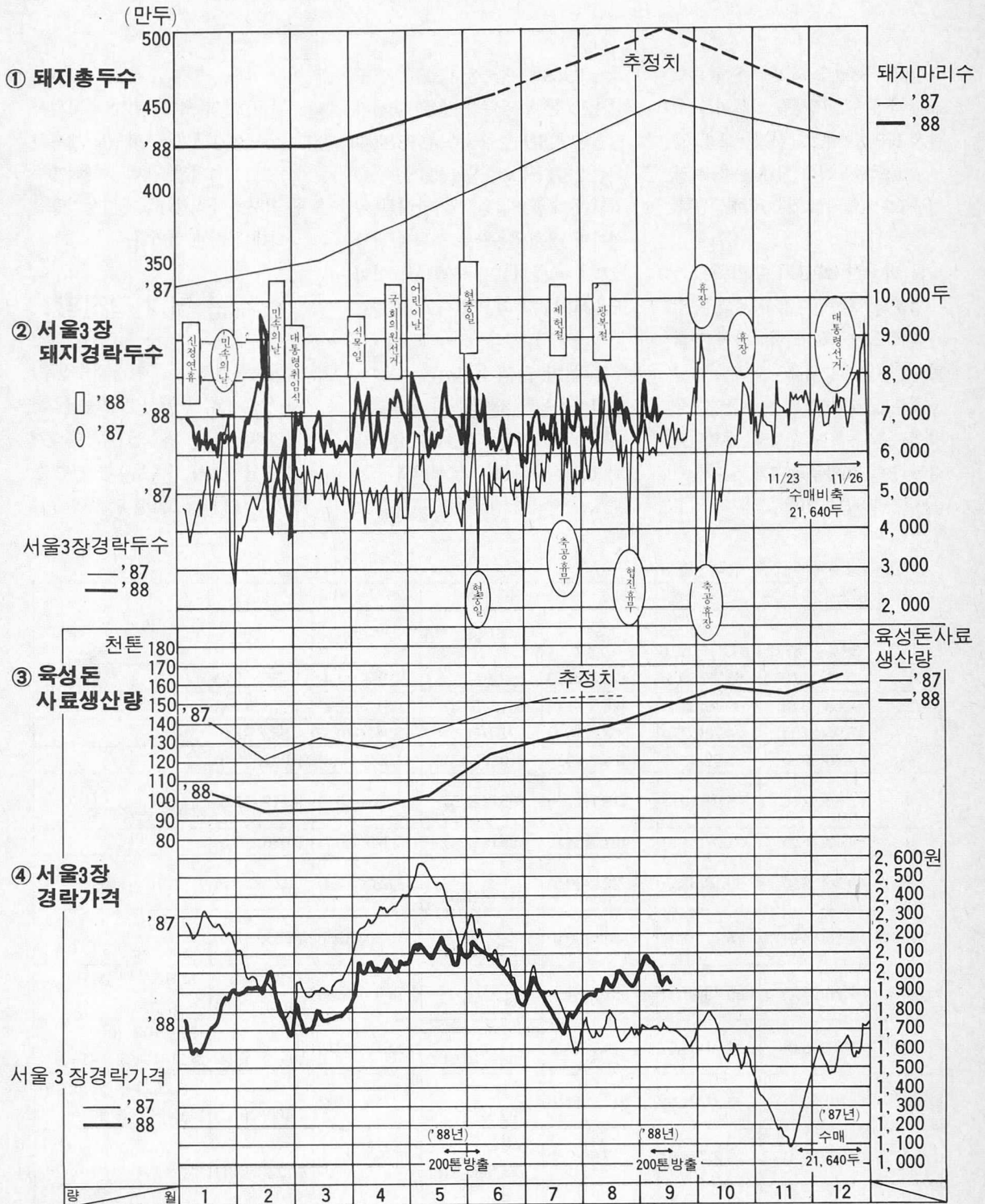
4/4분기의 돼지가격은 서울 평균 지육 기준으로 10월엔 1,860~1,960원, 11월엔 1,460~1,560원, 12월엔 1,730~1,830원대가 예상된다.

또한, 육계값(산지가격기준)은 상반기 중 초생추 반출량이 전년대비 0.4~58.3% 증가하여 0.7~22.2% 하락하였으나 최근 성수기를 맞이하여 전년대비 70~80% 크게 오르고 있다.

금년 상반기중 양돈사료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25.3% 증가했으나 최근들어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 육성돈 사료가격(공장도가격)은 6월 현재 kg당 1만 7천 4백 66원에 거래되어 전년보다 0.3% 밀도는 수준이었으나,금년 7월 중순경 8~12%의 사료값 인상으로 인하여 농가교역 조건이 크게 불리해졌으며 향후 한차례 더 인상이 예상되어 상당한 경영 압박이 될 것으로 내다 보인다.

### ③돈육수출 및 돈육 통조림 수입 동향

금년 1~7월까지 대일 돈육수출은 일본시장의 2.15%인 3천4백30톤(약8만두분, 일본통과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276.5% 증가한 반면, 외국산 돈육 통조림은 상반기중 498톤(약 9,800두분)이 수입되어 전년동기대비 189.5% 늘어났다.



〈그림 1〉 서울 3 장 경락두수와 경락가격 및 사료생산 추이

한편, '88년도 육가공품 원료 소요 돈육은 55만 5천두, 커트미트 수출은 14만 5천두로 (시장규모 1,400~1,500억원) 전체 국내 돈육 시장의 8.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④외국산 쇠고기 수입동향

업계의 생존권수호 차원의 수입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줄이기 위해 '88년도 수급 부족분 1만4천5백톤을 축산물유통사업단을 통하여 수입할 계획인데 금년 9월 10일부터 1차 입찰물량 900톤(미국산) 10월부터 2차 입찰

물량 2,155톤(미국산 1,005톤, 호주산 1,130톤, 캐나다산 20톤), 10월과 11월중엔 3차 입찰물량 4,795톤(미국산 2,375톤, 호주산 2,420톤)이 수입되어 수급조절용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올림픽용으로 사용될 관광호텔용 고급쇠고기 수백톤은 이미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다.

⑤질병 발생 동향

금년 1월부터 8월말까지 돼지콜레라가 60건 5,875두 발생하여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발생지역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적인 추세를 보

이고 있다.

한편, 돼지 오제스키병 역학검사는 금년에 1만 7천 4백두를 계획하고 있는데 7월말 현재 4천8백79두를 검사하여 이중 1두가 양성반응을 나타내 살처분 하였다.

2.수급 및 가격전망

가축통계조사 결과(농림수산부)와 양돈사료 생산량 및 도축실적과 가격변동 사항 자료를 종합분석해 볼때 금년 9월 사육두수는 전년 동기보다 12.1% 증가한 5백 8만두로

〈표1〉 4/4분기 수급 및 가격전망

구분	6개월전 모돈사료 생산량		도축두수(천두)		서울지역평균가격		비고
	천톤 '88.7~'87.6	천톤 '87.7~'88.6	'87	'88	'87	'88	
1	40.41(11.0%)	63.27(56.6)	472.8(27.5)	552.4(12.7%)	2,237 (-1.4)	1,735(-22.4)	
2	40.68 (8.8)	66.19(62.7)	426.3 (1.9)	581.5(33.4)	1,915 (-2.1)	1,773 (-7.4)	
3	48.95(27.1)	74.72(52.6)	503.3(16.7)	591.1(14.9)	1,941(-10.8)	1,882 (-3.0)	
4	54.66(30.8)	79.92(46.2)	462.2 (9.9)	610.9(29.3)	2,309 (-7.3)	2,024(-12.3)	
5	53.88(32.5)	75.92(40.9)	478.7(17.0)	605.4(23.5)	2,391(-16.6)	2,117(-11.5)	'88.5하순~6상순 870톤 돈육방출
6	64.09(45.2)	84.07(31.2)	491.7(34.2)	596.0(18.5)	2,089(-26.7)	2,030 (-2.8)	
7	60.36(39.3)	80.10(32.7)	522.2(30.5)	추정 614.0(15.0)	1,823(-34.4)	1,824 ( 0.1)	
8	61.26(45.0)	75.79(23.7)	588.6(50.0)	추정 683.0(13.4)	1,700(-35.3)	1,935( 13.0)	
9	67.29(37.4)	85.75(27.4)	597.7(34.9)	추정 695.0(13.7)	1,695(-32.4)	추정 2,040( 20.4)	'88.9.5부터 200톤 돈육방출
10	67.37(45.0)	81.98(21.7)	590.7(36.3)	추정 666.0(10.2)	1,613(-30.0)	추정 1,860( 15.3)	'88.9.10~ 10. 쇠고기수입 7,875톤
11	65.20(50.4)	80.21(23.6)	617.5(44.9)	추정 702.0(11.3)	1,255(-41.8)	추정 1,460( 16.3)	'88.11.23~'87.12.26 21,640두 수매
12	65.98(59.4)	75.27(14.0)	723.9(33.9)	추정 784.0 (5.9)	1,592(-28.5)	추정 1,730( 13.1)	
계 (평균)	690.13(37.6)	923.19(33.8)	6,475.6(27.1)	추정 7,681.3(18.6)	1,880(-22.8)	1,868 (-0.6)	

예측되며 12월엔 7.4% 증가한 4백 59만 8천두로 예측된다.

도축두수는 9월에 전년동기대비 13.7% 증가한 69만 5천두, 10월엔 10.2% 증가한 66만 6천두, 11월엔 11.3% 증가한 70만2천두, 12월엔 5.9% 증가한 78만4천두가 예상된다. (표1 참조)

4/4분기 가격전망은 서울 지육 평균가격 기준으로 9월에는 1,900~2,000원대, 10월에는 1,860-1960원대, 11월에는 1,460-1,560원대, 12월에는 1,730-1,830원대가 예상된다.

그 이유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년 하반기 들어 전년동기대비 도축두수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 6개월전 모돈사료(임신돈, 포유돈, 후보종돈, 종돈사료) 생산량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역시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며 <표2>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년동기대비 사육두수 증가율 역시

<표 2> 돼지마리수 증가추이 (단위: 천두)

구분	총 두 수		비고
	두 수	전년동기대비	
'86 3	2,873	1.1%	증가추세
6	2,932	3.8	
9	3,397	12.7	
12	3,347	17.3	
'87 3	3,516	22.4	감소추세
6	4,021	37.1	
9	4,532	33.4	
12	4,281	27.9	
'88 3	4,274	21.6	증가추세
6	4,607	14.6	
9	5,080(추정치)	12.1(추정치)	
12	4,598(추정치)	7.4(추정치)	

둔화 추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 3. 대책

제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1987-1991)기간 중 경제성장율은 평균 8.3%, 최종년도인 1991년에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5,100불을 목표로 잡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는데 따라 육류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생산자들이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수요촉진 대책에 무관심·비협조적이라면 산업의 장기적 발전은 그만큼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

최근 원예업을 하다가 양돈으로 전업한 분에 따르면 이분이 현재 총두수 400두 규모인데 돼지에 매력을 느껴 연말까지 1,000두 규모로 늘릴 계획이란 말을 들었다. 이러한 생각은 비단 이분 뿐만 아니라 이런 규모를 갖고 있는 대부분 양돈가들의 마음일 것이다. 수지가 맞으면 일정규모 이내에서 능력껏 길러 이윤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경영행위이지만, 이것이 잘못되어 투기적인 양돈으로 될때 너도나도(사료공장의 시험농장, 종돈장참여, 500대 개발기업의 신규참여 등)투기적으로 나갈때 산업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향상 및 분배(농가소득증대) 측면에서는 바람직스럽지 못할 것이다.

양돈농가 교역 조건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단기대책으로로는 소비촉진과 업계

자율적인 생산조절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과잉생산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수출전락산업화, 수출유망상품지정지원 육성, 저장·가공산업 육성)이 착실히 추진되어야 하며, 제도적으로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해 축산원자재의 관세·부가세 면세, 자가배합사료공장 허가, 사료 쿼터제도 폐지, 사료용원료 수입자유화, 무허가 축사 양성화 양축자금의 장기처리용자 및 국제곡물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인상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 국제곡물가격 인상을 일본과 같이 사료 기금에서 흡수할 수 있는 장치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품질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돈육을 생산한 양축가에게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는 돼지 도체등급제도를 조속히 실시하여야 하며, 소득계층간 돈육 소비 확대와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는 부위별 차등가격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종돈개량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품목별 생산자협회에서 전문적으로 해당품목의 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돼지의 개체·비교심사 뿐만 아니라 육질평가와 종돈 경매 및 부대행사를 통해 양축가들의 개량욕을 조성·촉진할 때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국제화시대에 경쟁력을 길러야 할 시점에서 낙후되지 않고 발전해 나갈 것으로 내다 보인다. \*